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경건한 삶의 매력 성경: 빌립보서 4장 8-9절

Tag: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4:8-9)

경건한 삶이란 매력적인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야 하되,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 8절은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인가에 대한 표준이 되고 있다.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경건은 일종의 삶의 스타일이다.

넓게는 의식주까지 포함된다. 좁게는 종교적 예식을 말한다.

물론 본문 말씀에서의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가치관이 경건한 삶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적용해야 한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은 가시적으로는 율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으나 속내는 율법에 부합한 경우도 있다.

(암스테르담의 노인과 여인. 굶겨죽이는 형벌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는 딸의 이야기.)

걸 모습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속까지 그런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삶이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경건한 삶 가운데 아주 지극히 평범한 기본적인 기초 경건이다.

- ‘무엇에든지’ 라는 말씀의 해석은, 더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경건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예, 고전7장-결혼하지 않는 경건, 고전8장-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에 대한 것; 문자적인 준법정신이 꼭 경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과 배려심이 중요하나,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이시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의 순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대부분은 예전에 하던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것이 곧 경건한 삶이다. (네비게이션의 기능과 비슷함)

-경건한 삶이 살아있다.

-과거에는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여겨졌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 는 원리를 적용해 보면 결과는 달라진다.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기도할 것인가?

-한 시간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나를 위한 것이 몇 %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몇 %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나에게 수입이 얼마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몇% 소비할 것인가?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삶을 튜닝해 가는 것이 얼마나 매력
이 있는 삶인가? (세부 조정)

-경건한 삶을 위한 세부조정은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향후 나
의 삶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평생토록 경건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천막을 짓는 바울 성경: 사도행전 18장 1-4절

Tag:

1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행18:1-4)

-창업 과정 짧게 소개

-생업이 같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같이 일함.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함.

-동업을 함. 천막을 만드는 일. (피복 공예) 아마 바울의 고향에서의 생업이었을 것이다.

-안식일마다 강론함. 본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카페 나아스टे는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